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Morning Brief

하루에 하나



2025.12.18

DECEMBER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원/달러 환율

1,479.75원 (+2.75원)

KOSPI

4,056.41 (+57.28, +1.43%)

KOSDAQ

911.07 (-5.04, -0.55%)

국고채 10년 금리

3.324(+0.011%p)

동 자료는 오늘 발간된 자료의
요약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각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hanafn.com



Global Asset Strategy

- | | |
|-----------|--------------------------------------|
| New K-ETF | 동학개미 [박승진] |
| New K-ETF | 국내 조선 기자재, 증기채권 액티브 [박승진] |
| 하나채권 | 고용 부진이 실업률 상승으로, 내년 적정 기준금리 추정 [박준우] |

산업분석

- | | |
|-----|--|
| 타이어 | 물량 저성장을 판가-원가 Spread 확대로 만회하면서 실적 호조 [송선재] |
|-----|--|

글로벌리서치

- | | |
|-------|---------------------------|
| 라이언에어 | 유럽 시장 내 비용 우위 지속될 것 [안도현] |
|-------|---------------------------|

단기투자유망종목

- | | |
|---|--|
| 삼성전자, KT, S-Oil, 이수스페셜티케미컬, 파라다이스, 지역난방공사, 한국단자, 아이에스동서
세아홀딩스, 인투셀 | |
|---|--|

하나증권



2025년 12월 17일 | Global Asset Research

Global ETF

New K-ETF

동학개미

Compliance Notice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시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신규 상장 ETF(12/16): RISE 동학개미

RISE 동학개미: 국내 개인 투자자들의 주요 매수 종목들(한국 증시)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패시브 ETF이다. 팬데믹 이후 국내 증시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핵심 수급 주체로 올라선 개인 투자자들의 매매 특징을 반영하여 편입 대상 종목들을 선별한다.

국내 증시에 상장된 종목(시가총액 1조원↑, 평균 거래대금 2억원↑) 가운데 직전 1개월 기준 개인 투자자들의 누적 순매수 금액 상위 20% 종목들을 1차 유니버스로 선정한다. 이어 1차 유니버스 종목들 가운데 직전 12개월에서 최근 1개월을 제외한 11개월의 주가 상승률을 산출하여, 최상위 수익률 10개 종목들을 동일 비중으로 배분하여 당월 포트폴리오에 편입한다. 최종 ETF 포트폴리오는 전월과 당월의 포트폴리오를 각각 50%씩 조합하여 구성함으로써 과도한 종목 교체를 방지하게 된다.

상기 조건을 반영할 경우 편입 대상으로 확정된 종목들에 대해서는 5%의 개별 비중이 할당된다. 다만 전월과 당월 포트폴리오에 모두 선정된 종목들이 있을 경우, 각각의 5% 비중을 합산하여 총 10%의 비중을 배분한다. 따라서 전월의 10개, 당월의 10개 종목 포트폴리오는 2개월 간의 교집합 종목들의 발생 상황에 따라 편입 종목 수가 20개 이하로 결정된다. 상장일(12/16)을 기준으로 총 17개 종목들이 포트폴리오에 편입되어 있는데, 현대건설과 삼양식품, 파마리서치가 10%의 비중이 할당된 종목들이 되겠다.

개인 투자자들은 위험 감수 성향이 강하고 트렌드에 민감한 한편, 모멘텀과 추세를 우선순위에 두고 투자 대상을 선정하는 경향을 보인다. 대부분의 수급 전략 ETF 종목들처럼 'RISE 동학개미 ETF' 역시 국내 개인 투자자들의 움직임을 신속하게 포착 및 반영하기 위해 월간 리밸런싱을 진행하며, 이를 통해 시장 주도 테마를 적극적으로 추종하는 포트폴리오 구성을 기대할 수 있다. 포트폴리오의 정기 리밸런싱은 매월 선물옵션 만기일 이후 두 번째 영업일부터 3영업일 동안 진행된다. 0.07%의 총 보수가 적용되는 ETF 종목이다.

도표 1. RISE 동학개미 ETF의 종목 개요

ETF명	RISE 동학개미
상장일	2025년 12월 16일 화요일
기초지수	FnGuide 동학개미 지수
복제방법	실물(패시브)
1좌당 가격	10,000원
총 보수	0.07%
구성종목 수	17종목(*25.11.30 기준)
비중결정방식	전월 및 당월 타겟 포트폴리오 각각 50%, 각 타겟 포트폴리오 내 종목은 동일 가중
정기변경	매월(선물옵션 만기일 두 번째 영업일부터 3영업일 간)

자료: KRX, 하나증권



Global ETF 박승진 sj81.park@hanafn.com
RA 전종운 jonghoonjeon@hanafn.com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Global ETF

2025년 12월 17일 | Global Asset Research

New K-ETF

국내 조선 기자재, 중기채권 액티브

Compliance Notice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시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신규 상장 ETF(12/16)

- SOL 조선 기자재, SOL 중기 종합채권(AA-이상) 액티브

SOL 조선 기자재: 조선 기자재 밸류체인에 속하는 국내 주요 기업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패시브 ETF이다. 선박 제조에 필요한 엔진, 보냉재, AM솔루션, 피팅, 크레인 등의 부품을 제조 및 공급하는 기업들을 편입한다.

유동성 조건(시가총액 2천억원↑, 거래대금 10억원↑)을 충족하는 국내 상장 기업들 가운데 조선, 기계, 화학 업종에 속하는 기업들을 편입 대상 유니버스로 하며, 최근 정기보고서 내용에 조선 기자재 관련 키워드(엔진, AM솔루션, 기타)를 검색하여 키워드 빈도수가 3 이상인 시가총액 상위 10개 기업들로 최종 포트폴리오가 구성된다.

상위 3개 종목은 TOP3 포지션으로 지정하고, 각각 20%의 비중을 할당한다. 나머지 7개 종목의 경우 40% 비중에 대하여 유동시가총액 가중방식의 기준으로 편입 비중을 결정하게 된다. 상장일(12/16)을 기준으로 한화엔진, 한국카본, HD현대마린엔진, HD현대마린솔루션, 성광밴드, STX엔진, 세진중공업, 태광, 현대힘스, 오리엔탈정공이 편입되어 있다.

포트폴리오의 정기 리밸런싱은 매년 4회(2월/5월/8월/11월)에 걸쳐 진행되며, 개별 종목의 편입 상한 비중은 20%의 Cap Rate으로 제한된다. 총 보수는 0.45%이다.

SOL 중기 종합채권(AA-이상) 액티브: 신용등급이 AA- 이상이고, 만기가 1~5년 사이에 도래하는 채권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국내 종합 채권 액티브 ETF이다. 국채, 통안채, 지방채, 공사채, 은행채, 여전채, 회사채 등 국내 발행 채권들을 종합적으로 편입한다.

비교지수인 'KAP K-중기종합채권지수(AA-이상, 총수익)'는 발행잔액이 500억원 이상인 채권들을 편입 대상으로 하며, 채권 97%와 Call 3%의 조합으로 구성된다. 비교지수의 채권 포지션은 시가총액 가중방식 기준으로 매일 리밸런싱을 진행한다. 총 보수는 0.05%이다.

도표 1. SOL 조선 기자재, SOL 중기 종합채권(AA-이상) 액티브 ETF의 종목 개요

ETF명	SOL 조선 기자재	SOL 중기 종합채권(AA-이상)액티브
상장일	2025년 12월 16일 화요일	
기초(비교)지수	FnGuide 조선기자재 지수(PR)	KAP K-중기종합채권 지수(AA-이상,총수익)
복제방법	실물(패시브)	실물(액티브)
1좌당 가격	10,000원	50,000원
총 보수	0.07%	0.05%
구성종목 수	10종목	4,399종목('25.11.30 기준)
비중결정방식	- TOP3 종목 : 60%(동일가중방식) - TOP3 이외 : 40%(유동시가총액 가중방식)	채권 97%(시가총액 가중방식) 및 Call 3%
정기변경	매년 2,5,8,11월 선물옵션 만기일(D) 이후 2영업일(D+2)	매일

자료: KRX, 하나증권



Global ETF 박승진 sj81.park@hanafn.com
RA 전종훈 jonghoonjeon@hanafn.com

2025년 12월 17일 | Global Macro Strategy

Fixed Income

하나채권

고용 부진이 실업률 상승으로, 내년 적정 기준금리 추정

Compliance Notice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침체기 수준의 고용둔화가 실업률 상승으로 나타나기 시작. 11월 '총 임금' 증가율은 GDP 성장을 하락을 시사 [도표 4]. 내년 3월 기준금리 인하 전망을 유지
- 테일러 준칙으로 추정한 2026년 연말 기준금리 범위는 2.8%~3.5% [도표 5]. 차기 총재 성향 고려 시 2.75%~3.00%로 인하 전망

BLS의 11월 고용 상황 보고서에서 노동시장의 점진적인 둔화 추세가 확인됐다. 11월 비농업 고용은 +64k로 예상(+50k)을 상회했으나, 8, 9월이 총 3만명 이상 하향됐고 이번에 함께 발표된 10월 고용은 -105k로 크게 부진했다. 같은 날 발표된 ADP 주간 고용은 +16k(11/29 기준 4주 평균)으로 크게 반등했으나, [도표 1]과 같이 신규 고용의 큰 추세는 둔화다.

신규 고용이 6개월 평균 1.7만명으로 침체기 수준을 기록하는 가운데 11월 실업률이 4.56%로 9월 대비 0.1%p 상승했다. 연준이 12월 FOMC에서 제시한 전망(4.5%)을 상회했다. 노동시장은 여전히 '저고용 & 저해고' 환경이다 [도표 2]. 다만 최근 실업률 상승은 고용부진이 단순히 공급 감소 때문이 아니라 수요 측 요인에도 기인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실업률 상승으로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은 지속될 전망이다. 12월 FOMC에서 기준금리 동결을 주장한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는 FOMC 이후 인터뷰에서 고용의 breakeven을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현재 노동시장 판단에 더 중요한 지표는 실업률과 같은 비율 지표라고 언급한 바 있다. 실업률이 연준 전망을 상회한 상황이므로, 내년 3월 인하 전망을 유지한다. 이는 CME FedWatch에 반영된 다음 인하 시점(4월)보다 빠르다.

하나증권은 실업률이 급등하지 않더라도 고용 둔화만으로도 성장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한다. 정확히는 비농업고용, 근로시간, 시간당 임금을 곱하여 산출되는 총 임금 증가율이 성장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11월 고용 보고서에서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전월비 0.1%, 전년동월비 3.5%로 둔화됐다 [도표 3]. 이에 미국 가계의 '총 임금' 증가율도 명목 기준 +4.3%로 둔화됐다. 그 속도는 매우 점진적이나 향후 명목 성장률의 약화 가능성을 시사한다 [도표 4].

11월 실업률과 연준의 12월 PCE 인플레이션 전망 등에 근거해 2026년 연말 적정 기준금리 범위를 추정하면 약 2.8%~3.5%다 [도표 5]. 차기 연준 의장은 누가 되든 완화적인 성향일 가능성이 높다. 연준의 독립성을 지키는 동시에 매크로 환경으로 설명이 가능한 수준까지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적정 기준금리 범위의 하단인 2.75%~3.00%로 인하가 가능할 전망이다(시장 프라이싱 대비 1회 추가 인하).



차관전략 박준우, CFA junoopark@hanafn.com



글로벌 타이어 판매 동향(2025년 11월)

물량 저성장을 판가·원가 Spread 확대로 만화하면서 실적 호조 | 2025.12.18

투자의견

Overweight

자동차 Analyst 송선재 sunjae.song@hanafn.com

RA 강민아 minahkang@hanafn.com

Key Insight: 4분기 양호한 실적흐름이 유지되고, 단기~중기로 증설 모멘텀도 기대할 수 있어 타이어 업종에 대한 비중확대 유지

산업분석

- 글로벌 타이어 판매는 물량 저성장 지속. 글로벌 OE/RE 판매는 11월 -3%/-2% (YoY). 11월 누적 +3%/+1% (YoY) 기록
- 판매 비중 20%인 OE 판매는 전방 수요저인 완성차의 생산 둔화 영향으로 유럽/북중미는 누적 감소. 중국OE만 증가
- 판매 비중 80%인 RE 판매는 특별한 변동 동인이 없는 상태에서 국가별 경기에 따라 1% 전후의 증가율을 기록
- 전반적으로 전방 산업 둔화 및 타이어 소비심리 부진 등으로 낮은 물량 증가율이 유지되고, 판가 인상과 믹스 개선으로 ASP는 상승

주가

- 타이어 산업의 환경은 'Low Single 수준의 물량 증가+Mid Single 수준의 ASP 상승+주요 비용의 안정화' 구도가 지속
- 여기에 전년 동기의 기저 효과와 개별 이슈들이 추가되면서 각 타이어 업체들의 분기별 이익 증가율이 변동되는 모습
- 4분기 실적의 경우, 한국타이어는 전년 동기 반덤핑 관세 환입에 따른 높은 기저 효과, 금호타이어는 5월 광주공장 화재에 따른 생산 제약 등이 있겠지만, 3분기에 이어 '판가·원가 Spread의 확대'라는 요인이 유지/강화되면서 호실적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
- 개별 부정적 이슈(한국타이어는 한온시스템 증자 참여, 금호타이어는 광주공장 화재, 넥센타이어는 미국 공장의 부재)도 주가에 선반영된 이후 완화되고 있고, 증설 모멘텀(한국타이어는 미국 공장 증설, 금호타이어는 한국/유럽 신공장 건설, 넥센타이어는 유럽 공장 가동률 확대)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이어 업종에 대한 비중확대 의견을 유지

타이어 판매 현황: 2025년 11월 승용차용 RE 판매는 글로벌 -2%, 유럽 -8%, 북중미 +0%, 중국 +6%. 11월 누적은 글로벌 +1%

승용OE

- 11월 글로벌/유럽/북중미/중국 OE 판매는 -3%/-5%/-11%/-1% (YoY)
- 유럽 OE는 수요 부진과 수출 감소의 영향으로 감소. 북중미 OE는 막크로 환경의 불확실성 등으로 감소
- 중국 OE는 정부 보조금과 전방 완성차 수출 증가에 따른 수요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기의 높은 기저의 영향으로 감소
- 11월 누적 글로벌/유럽/북중미/중국 OE 판매는 +3%/-5%/-3%/+10% (YoY) 기록 중

승용RE

- 11월 글로벌/유럽/북중미/중국 RE 판매 -2%/-8%/+0%/+6% (YoY)
- 유럽 RE는 수입산에 대한 반덤핑 조치를 앞두고 타이어 수입이 부진하면서 감소. 북중미 RE도 저가 타이어 수입 둔화하며 정체
- 중국 RE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세가 지속되는 모습
- 11월 누적 글로벌/유럽/북중미/중국 RE 판매는 +1%/+2%/-0%/+2% (YoY) 기록 중

상용차용

- 11월 글로벌(중국 제외)/유럽/북중미/남미 상용차용 OE 판매 -5%/+6%/-26%/-27% (YoY)
- 11월 글로벌(중국 제외)/유럽/북중미/남미 상용차용 RE 판매 -1%/+0%/-6%/+16% (YoY)
- 유럽 OE는 상반기 반등 후 안정세 유지. 북중미 OE는 경제 불확실성과 신차 공급 과잉 속 트럭 생산이 감소하며 낮은 수요 지속
- 남미 OE는 높은 금리와 브라질 혜일화의 가치 하락, 미국 판세 등으로 수요 감소가 가속화되는 모습
- 북미 RE는 견조한 수입과 OE 수요 하락에 따른 영향으로 상대적 수혜를 받으며 성장
- 유럽 RE는 수입 타이어 증가로 소폭 증가했으나, 전반적인 수요는 정체된 상황
- 남미 RE는 아르헨티나 시장의 견인으로 안정적인 수요 유지
- 11월 누적 기준 글로벌(중국 제외)/유럽/북중미/남미 상용차용 OE 판매 -4%/+1%/-21%/-12% (YoY)
- 11월 누적 기준 글로벌(중국 제외)/유럽/북중미/남미 상용차용 RE 판매 +3%/+2%/+5%/+6% (YoY)

원재료가 및 운임지수 동향: 천연고무/합성고무 Spot 가격은 소폭 상승. 상해컨테이너운임지수는 정체

고무가격

- 천연고무 가격은 2025년 12월 중순 기준(이하 동일 기준) \$2,232/톤으로 +3% (MoM), -6% (YoY) 변동
- 합성고무 가격은 \$1,530/톤(+3% (MoM), -21% (YoY)).
- 합성고무 원재료인 부타디엔/스티렌 가격은 각각 +12%/+1% (MoM), -26%/-21% (YoY)
- 천연고무와 합성고무 가격은 모두 큰 폭 하락한 이후 제한된 범위에서 등락/횡보 중. 전반적인 원재료 가격에 대한 부담은 완화

운임지수

- 운송비용 척도인 상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 12월 중순 기준 1,507pt (+1% (MoM), -37% (YoY))
- SCFI는 고점 대비 하락 후 소폭 반등한 상태에서 횡보 중

2023년 12월 18일 | Global Equity

라이언에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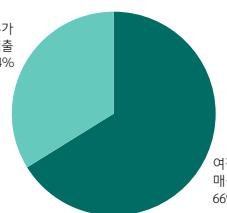
유럽

TP(컨센서스)	30.52 EUR
CP(12.17)	29.40 EUR

Key Data

국가	IRELAND
상장거래소	EN Dublin
산업 분류	산업재
주요 영업	여객 항공사
홈페이지	www.ryanair.com
시가총액(십억EUR)	30.9
시가총액(조원)	53.5
52주최고/최저()	30.15/16.8
주요주주 지분율(%)	
CAPITAL GROUP COMPANIES INC	13.56
ROTHSCHILD & COMPAGNIE GESTION	6.10
주가상승률	1M 6M 12M
절대	10.1 24.5 53.0
상대	4.9 12.0 18.8

매출구성



Financial Data	(백만 EUR)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	13,444	13,949	15,347	16,144
영업이익	2,061	1,558	2,394	2,718
순이익	1,917	1,612	2,202	2,488
EPS(USD)	1.7	1.5	2.1	2.4
EPS(YYO, %)	33.9	(13.1)	43.4	14.6
ROE(%)	28.9	22.0	28.9	27.8
PER(비)	12.5	12.7	14.1	12.3
PBR(비)	3.1	2.8	3.8	3.1
배당률(%)	1.7	2.4	1.6	1.8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유럽 최대 항공사 그룹

라이언에어는 유럽 최대 저가항공사 그룹으로, 그룹 내에 라이언에어/Buzz/Lauda/Malta Air 등 다국적 항공사를 포함하고 있다. 주요 기종으로 B737을 사용하고 있고, 10월 말 기준 640대의 여객기를 운항 중이다. FY2025(2025.4~2026.3)의 매출액은 €139.5억(+4% (YoY)), 영업이익은 €15.6억(-24%, 영업이익률 11.2%)을 기록하며 견조한 수익성을 이어가는 중이다. 매출액의 66%가 일반 여객 매출이며, 34%는 부가 서비스에서 발생한다. 라이언에어는 경쟁사 대비 낮은 기본 요금을 책정하고, 추가 서비스 차지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매출을 창출한다. 저가항공 특성상 탑승률이 관건인데, 라이언에어는 평균 탑승률이 94%에 이른다.

압도적 비용 우위에 주목

FY2026 상반기(2025.4~2025.9) 라이언에어 매출액은 13% (YoY), 영업이익은 42% 증가했는데, 평균 여객 운임이 13% 상승하면서 매출액 증가를 견인했고, 단위 비용은 유가 하락에 따라 1% 증가에 그쳤다. 라이언에어는 낮은 부채, 공항과의 이용요금 협상, 항공기 대량 구매 및 환율/유가 혜정을 통해 경쟁사 대비 낮은 단위 비용을 유지하고 있고, 이러한 비용 격차는 점차 벌어지고 있다. 9월말 기준 라이언에어의 부채비율은 83%로 글로벌 항공사 대비 월등히 낮은 수준이며, 향후 추가적인 부채 감축(€12억 상당)을 통해 이자비용을 절감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쟁사들이 비수익 노선을 축소하는 가운데, 유럽 항공 시장에서 라이언에어의 점유율은 압도적인 비용 우위로 상승할 수 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탑라인 성장을 증명할 시점, 밸류에이션은 과거 대비 저평가

라이언에어의 비용은 향후로도 낮게 유지되며 경쟁사와의 격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이제는 탑라인 성장을 다시금 증명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다. 라이언에어의 FY2026 여객량 증가율은 3% (YoY)로 전망되어 시장(4% 추정)대비 낮고, 이는 과거 대비 밸류에이션을 제약하는 요인이다(과거 평균 P/E 15배 수준). 하지만 향후 유럽 시장의 저수익 항공사들의 재편이 이루어지면서 라이언에어의 탑라인 성장률이 제고된다면 밸류에이션 상향 요인과 높아진 수익성이 결합하면서 주가는 추가 업사이드를 기대해 볼 수 있다. 현재 12MF P/E는 13배 수준으로 라이언에어의 높은 ROE(28%)와 굳건한 No.1 포지션을 감안하면 과도한 수준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Analyst 안도현 dohyunahn@hanafn.com

ETF 투자유망종목

해외주식분석실



국내 ETF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KODEX 미국AI테크 TOP10 (485540.KS)	2025.07.22	12,290	14,905	21.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AI 관련 핵심기업 10개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종목. AI 기술을 적용한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AI를 비즈니스에 적극적으로 적용시키고 있는 Magnificent7와 AI5 기업들에 집중하는 테마 ETF 상용화의 영역 확장이 지속되고 있으며, 반도체를 중심으로 소버린 AI, 신제품 교체 수요들이 꾸준히 확인되고 있는 상황. 중국 수출 규제 완화와 트럼프 정부의 AI 육성 정책 모멘텀도 긍정적
PLUS 글로벌방산 (496770.KS)	2025.03.04	13,000	17,430	34.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과 유럽의 주요 방산기업들을 편입하는 종목. 독일 방산업체 라인메탈디펜스, 이탈리아의 레오나르도, 스웨덴의 사브 등이 포트폴리오에 포함 트럼프 행정부의 NATO 방위비 압박으로 주요국들의 국방비가 증액되는 추세. 안보 환경 변화에 따른 구조적 수혜를 누릴 것으로 기대
WON 미국빌리어네어 (489290.KS)	2025.02.03	13,065	15,915	21.8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최상위 억만장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들로 구성하는 패시브 ETF. 미국에 상장된 주요 우량주 중심의 포트폴리오 Tech, 임의소비재, 커뮤니케이션, 금융, 필수소비재의 5개 업종이 포트폴리오의 90% 이상 비중을 차지. 브로드컴, 테슬라, 알파벳, 아마존, 월마트,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등 50개 우량 종목으로 구성
에셋플러스 글로벌 플랫폼 액티브 (407830.KS)	2024.09.25	9,690	17,190	77.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체불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영위한 해외 플랫폼 기업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액티브 ETF 전문화와 분업화 가운데 각 분야에서 우위를 보이는 기업들을 편입. 테슬라와 구글, 샤프, 마이크로소프트, TSMC, 텐센트 등이 주요 구성 종목

Global ETF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SMH (글로벌 반도체)	2025.11.24	49.14	351.94	7.9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형주 비중이 높은 대표 글로벌 반도체 ETF. 매출의 50%가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생산 분야에서 발생하는 기업들을 시가총액 가중방식으로 편입 엔비디아의 실적과 가이던스를 통해 AI 산업의 꾸준한 성장 모멘텀 확인. SMH는 NVIDIA와 TSMC가 30% 이상의 비중을 차지. Capex 경쟁 지속 가운데 소버린 AI 시장 확장, 신제품 교체 기반의 견고한 수요 기대 유효
SHLD (미국 방산 기술 주식)	2025.06.16	58.83	63.70	8.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통 방산기업들과 더불어 AI, 증강현실/가상현실, 사물인터넷, 사이버 보안, 연료시스템 등 첨단 군사 기술에 중점을 둔 기업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 각국 정부들이 국방 예산을 증액하는 과정에서 수혜 전망. 미국방부의 사이버보안 및 디지털 전환 정책에 힘입어 견조한 수급 모멘텀 기대
PAVE (미국 인프라 주식)	2025.11.124	38.07	48.76	4.97%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인프라 산업 관련 기업들로 구성된 인프라 테마 ETF. 산업재를 중심으로 소재, 건설장비, 운송, 엔지니어링 기업들을 편입하여 구성 금융시장 환경 변화 가운데 향후 정책 모멘텀 반영 가능성. 정치적 관점에서도 리쇼어링은 양당 모두 선호하는 방향성. 품목별 관세의 연속성 고려시 협상 과정에서 미국 내 인프라 수요 꾸준히 증가 전망
QGRO (퀄리티 성장주)	2025.01.03	101.56	113.92	12.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장성과 퀄리티를 함께 갖춘 중대형주로 구성된 ETF 경제 연착륙 시나리오가 안착하는 과정에서 성장 모멘텀에 대한 관심 증가. FOMC와 펀더멘털 퀄리티에 대한 해석이 변화하며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견고한 주가 흐름을 유지하며 상대 우위 보여줄 전망

주: 기준가는 편입일 당일의 종가, 전일종가는 한국 시장 3시 30분 기준.

단기 투자유망종목

글로벌투자분석실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삼성전자 (005930.KS)	12/15	108,900	107,900	-0.92%	<ul style="list-style-type: none"> AI 수요 견조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DDR4 가격상승과 더불어 NAND 업황 개선 맞물려 DDR 및 NAND 가격 상승은 레거시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에게 긍정적
KT (030200.KS)	12/15	52,600	53,900	2.47%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킹 관련 비용, 향후 실적 추정치에 상당 부분 반영된 상태 기대 배당수익률, 세전 7.5%, 배당금 2천만원 이하 세후 6.3%로 대단히 매력적인 수준
S-Oil (010950.KS)	12/15	81,600	84,900	4.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내 정제설비 폐쇄 증가 감안시, 타이트한 수급 환경 유지되며 정제마진 강세 전망 트럼프의 중동 전략 변화, OPEC+의 빠른 감산 완화로 인해 OSP 안정화 가능성 높아
이수스페셜티케미컬 (457190.KS)	12/15	62,900	58,500	-7.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고체 배터리 소재 '황화리튬' 대량 제조 가능한 국내유일업체 전고체 배터리, 휴머노이드 산업 개화와 맞물리며 조기 상용화 기대감 상승
파라다이스 (034230.KS)	12/15	18,090	16,260	-1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3Q25 Review 매출액 2,881억원(YoY +8.0%), 영업이익 395억원(YoY +9.0%) 기록 호텔 인수 및 소프트 오픈을 통해 가파른 이익 성장 기대
지역난방공사 (071320.KS)	12/15	108,400	108,200	-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3Q25 Review 매출액 7,582억원(YoY +29.6%), 영업이익 894억원(YoY +209.6%) 기록 열요금 변동, 판매량 증감, 원가 변하고 세 가지 변수 모두 양호한 방향 나타내는 중
한국단자 (025540.KS)	12/15	69,900	70,000	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동차의 전장화/전동화에 따른 수혜와 고객사 다변화 기대 하반기 미국법인 회복 및 유럽법인 호실적 지속 전망
아이에스동서 (010780.KS)	12/15	22,600	24,700	9.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26년 4월, 3.5조원의 초대형 자체 사업 3,443세대의 경산 중산지구 분양 결정 지방광역시 집값 반등과 대구 미분양 감소 등 긍정적 시그널 감지
세아홀딩스 (058650.KS)	12/15	129,900	126,500	-2.6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회사 세아베스틸지주, 미국 텍사스에 항공우주 및 방산용 특수합금 공장 건설 중 고부가제품 판매량 확대에 따른 제품 믹스 효과로 중장기 자회사 실적 모멘텀 지속 전망
인투셀 (287840.KQ)	12/15	64,400	58,200	-9.6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내 파트너사와 본계약 및 26년 임상1상 중간 결과 발표에 따른 추가 L/O 기대 BD 인력 보강, 플랫폼 세부 구성 다각화 중

단기 투자유망종목 수익률

주간(This Week)		누적(YTD)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1.37%	+1.27%p	+73.30%	+18.57%p

주: BM은 KOSPI. BM대비 누적수익률은 일 평균 종목수익률을 BM과 비교 적용한 후 누적 계산. 주기 단위로 Rebalancing. 손절가(Loss cut)는 종가기준 -10%선 적용

증장기 투자유망종목

글로벌투자분석실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아이에스동서 (010780.KS)	12/15	22,600	24,700	9.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26년 4월, 3.5조원의 초대형 자체 사업 3,443세대의 경산 종산지구 분양 결정 지방광역시 집값 반등과 대구 미분양 감소 등 긍정적 시그널 감지
한국단자 (025540.KS)	12/8	66,700	70,000	4.9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동차의 전장화/전동화에 따른 수혜와 고객사 다변화 기대 하반기 미국법인 회복 및 유럽법인 호실적 지속 전망
케이엠더블유 (032500.KQ)	12/1	15,110	15,380	1.79%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트럼프 600MHz 광대역 주파수 할당 촉구에 주목, 2026년 대규모 투자 기대 중국 부품 제재 강화, 오픈랜 확대 등의 영향으로 미국 수출 양호한 흐름 지속
지역난방공사 (071320.KS)	11/17	105,200	108,200	2.85%	<ul style="list-style-type: none"> 3Q25 Review 매출액 7,582억원(YoY +29.6%), 영업이익 894억원(YoY +209.6%) 기록 열요금 변동, 판매량 증감, 원가 변화고 세 가지 변수 모두 양호한 방향 나타내는 중
삼성E&A (028050.KS)	11/3	25,950	25,200	-2.89%	<ul style="list-style-type: none"> CIS 국가들(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등)에서 가스 등의 프로젝트 참여 예정 26년 사우디 가스(Khafji, 20억달러), 카타르 화학(40억달러) 신규 수주 기대
SK하이닉스 (000660.KS)	10/20	465,500	551,000	18.37%	<ul style="list-style-type: none"> 3Q25 Review 매출액 24.5조원(YoY +39.0%), 영업이익 11.4조원(YoY +62.0%) 기록 빅테크 중심의 HBM 수요가 견조한 가운데, 대규모 CAPEX가 동반되며 HBM 수혜 전망
삼성전기 (009150.KS)	10/13	210,500	258,500	22.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컴포넌트 사업부 외에도 패키지 및 광학솔루션 사업부의 우상향 가시성 확보 고부가 AI 서버 및 전장향 MLCC 공급 확대로 연간 실적 호조 전망
하이브 (352820.KS)	10/13	272,500	304,000	11.56%	<ul style="list-style-type: none"> BTS, 내년 봄 신보 발매를 시작으로 연중으로 대규모 투어 진행 예정 글로벌 주요 거점 지역에서 다양한 현지 아티스트 데뷔를 준비하며 글로벌 시장 확대 기대
삼성전자 (005930.KS)	10/1	83,900	107,900	28.61%	<ul style="list-style-type: none"> AI 수요 견조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DDR4 가격상승과 더불어 NAND 업황 개선 맞물려 DDR 및 NAND 가격 상승은 레거시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에게 긍정적
KB금융 (105560.KS)	10/1	115,500	124,300	7.62%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쟁은행 대비 확대되었던 PBR gap이 좁여지면서 가격 매력 재부각 25년 총주주환원 규모 총 3.01조원으로 총주주환원을 약 53% 수준
한국금융지주 (071050.KS)	10/1	145,000	157,600	8.69%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증시 거래대금 증가에 따른 브로커리지 수익 증가로 호실적 기대 하반기 종합투자계좌(IMA) 인가 이후 추가적인 수신 기반 확대 전망
S-Oil (010950.KS)	10/1	62,400	84,900	36.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내 정제설비 폐쇄 증가 감안시, 타이트한 수급 환경 유지되며 정제마진 강세 전망 트럼프의 중동 전략 변화, OPEC+의 빠른 감산 완화로 인해 OSP 안정화 가능성 높아

증장기 투자유망종목 수익률

분기(4Q)		누적(YTD)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12.99%	-4.76%p	+59.14%	+4.41%p

주: BM은 KOSPI. BM대비 누적수익률은 일 평균 종목수익률을 BM과 비교 적용한 후 누적 계산. 분기 단위로 Rebalancing. 손절가(Loss cut)는 종가기준 -10%선 적용

Calendar

글로벌투자분석실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2.14	12.15	12.16	12.17	12.18	12.19	12.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11월 소매판매 (1.3%, 10월 2.9%) ■ 중국 11월 광공업생산 (4.8%, 10월 4.9%) ■ 중국 11월 누적 고정자산 투자 (-2.6%, 10월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12월 지분은행 제조업 PMI P (49.7P, 11월 48.7P) ■ 유로존 12월 HCOB 제조업 PMI P (49.2P, 11월 49.6P) ■ 미국 12월 NAHB 주택시장지수 (39.0P, 11월 38.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11월 수출/입 (6.1%/1.3%, 10월 3.6%/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로존 12월 기준금리 (E 2.00%, 10월 2.00%) ■ 미국 11월 소비자물가/근원 소비자물가 (E --/--, 10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11월 소비자물가/신선식품 제외 소비자물가 (E --/--, 10월 3.0%/3.0%) 	
12.21	12.22	12.23	12.24	12.25	12.26	12.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10월 내구재 주문 (E --, 9월 0.5%) ■ 미국 11월 광공업생산 (E 0.1%, 10월 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12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기대지수 (E --, 11월 88.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11월 실업률 (E --, 10월 2.6%) 	

주: 1) 갤호 안은 예상치(E), 전일 순, 한국시간 기준 (*E)는 당시 추정치. 2) 유로권, 북미는 전일대비(PCE 디플레이터는 전년동일대비), 아시아, 신흥국은 전년동일대비 기준, 3) P(속보치), A(잠정치), F(확정치)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와 종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담당자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시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담당자는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